

## 한국사회정책 편집인의 글

한국사회정책 30권 제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총 여섯 편의 연구논문이 실렸습니다.

“고용안전망 및 고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이호근)은 고용보험법상 종속적 임금근로자는 의무적용 대상자이고 자영업자도 임의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광범위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직업안정법 개정 대신 무분별한 노동력 중개사업의 확산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파견과 용역, 직업소개업 등 「노동력 중개 사업에 대한 통일적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윤홍식, 이충권)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적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실증하였습니다. 저자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의 소득보장의 제도화와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노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확대 원인과 대안 실태”(이혜정)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경험에 주목하였습니다. 저자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래된 법·규정의 현실적 개정,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안정적 예산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여가부의 사회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에 대한 노동법 관점에서의 검토와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해소와 동종 사회복지시설 내 유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일원화 및 생활임금 적용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비정규직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은별, 이승윤)은 주4일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쟁점을 검토하며, 주4일제가 한국사회와 노동시장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

레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및 논의 주체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환경 및 노동시장 격차에 대한 고려, 그리고 젠더평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주4일제 도입시 노사정 차원의 사회적 논의와 사회안전망의 상보적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년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화를 중심으로”(이병훈, 김은경, 김한나)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을 ‘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으로 제시하며,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저자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구와 정책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이해하고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기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국민연금 소득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이혜연, 김민정)는 생애초기인 아동기에 겪은 위험경험이 노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축적 모델의 작동을 실증하였으며, 이에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조기개입과 더불어 특정시점의 위험이 생애후기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생애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조절해주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기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최근 코호트에서 더 확대됨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시기 지연 및 소득대체율 하향의 개혁방향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는 두 편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정준호 교수(강원대학교)가 대런 아세 모글루와 사이먼 존슨(Daron Acemogluj & Simon Johnson, 2023)의 『권력과 진보』(원제: Power and Progress: Our 1000-Years Struggle Over Technology & Prosperity)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맹목적 ‘미래 낙관주의’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고 기술 발전 경우에 다양한 불일치가 쟁투하는 ‘권력’이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혜주 교수(고려대학교)가 박한슬(2022)의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지금의 의료 서비스가 계속되리라 믿는 당신에게』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3호에 실린 연구논문과 서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 9. 30

편집위원장 **백학영, 백승호**